

#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중국과의 무역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de Risk Management of Korean Companies  
in Incheon Area Trading with China

심상렬(Sang-Ryul Shim)

광운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교수(주저자)

배상필(Sang-Pil Bae)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박사과정(공동저자)

왕천교(Tian-Jiao Wang)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공동저자)

##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무역리스크와 무역리스크 관리     | 참고문헌     |
| III. 무역리스크 관리 선행연구 검토   | Abstract |
| IV.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무역리스크 관리 |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인천지역 소재 한국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일반 현황, 중국과의 무역업무처리 현황, 중국과의 무역클레임 및 무역리스크 관리 현황 등 3가지 범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였다. 그리고 총 84개 유효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태분석하였다.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무역, 금융, 노동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 중국의 물류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정부 및 중국의 경제구조와 관련한 리스크는 개별 무역업체 차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거래 각 단계별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의 대중국 무역리스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무역거래, 무역리스크, 무역리스크 관리, 인천지역 무역업체, 한·중 무역

\* 본 논문은 광운대학교 2012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I. 서론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중 양국 간의 무역이 간접무역에서 직접무역 형태로 바뀌고, 무역액이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이 되었다. 1992년 63.8억달러(수출 26.5억달러, 수입 37.3억달러)에 불과하였던 한국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2011년 2,206.2억달러(수출 1,341.9억달러, 수입 864.3억달러)로 약 34.6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6위에 머물던 중국은 2001년 2위로 부상한 이후 2004년부터 1위의 교역파트너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중국의 4위 무역대상국이 되었다.

또한 대중국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1992년 314건에 2.2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 2,179건에 48.7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년 간 신고건수 기준 6.9배, 투자금액 기준 25.3배 각각 증가하였다.<sup>1)</sup> 이렇듯 한·중 양국 간의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리스크, 즉 무역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역리스크(foreign trade risk)는 리스크의 성격 측면에서는 일반 비즈니스상의 리스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은 무역거래와 관련한 언어, 상관습, 정책 등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적 및 영업 본거지를 갖고 있으며, 국내거래보다 더욱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 문화, 언어와 상관습의 차이 등 복잡하고 다양한 리스크가 따르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분쟁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의사소통이 영어 등 외국어로 이루어지고, 거래처도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환율변동, 정책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무역리스크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주요 경영관리의 한 항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무역리스크에 관한 연구는 운송 및 보험, 환위험, 분쟁해결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무역리스크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인천 지역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무역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잠재적 및 현실적인 무역리스크를 분석하며, 보다 효율적인 무역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 연구와 실태분석을 병행한다.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무역리스크 관

1) 이봉걸, “한·중 수교 20주년 대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 『Trade Focus』, 국제무역연구원, 2012.5, pp.1-3.

2) 정홍주·성수남·최유미, “무역리스크관리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무역학회지』, 제37권 제3호, 2012.6, p.71.

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 간의 전반적인 무역 현황과 문제점,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중국과의 무역거래 현황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인천지역 한국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거래 현황과 무역리스크 관리 실태를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II. 무역리스크와 무역리스크 관리

### 1. 무역리스크의 개념 및 유형

#### 1) 무역리스크의 개념

리스크(Risk)에 대해서는 불확실성(uncertainty), 변동가능성(change possibilities) 등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발생의 가능성(possibilities of damages)이라고 정의한다.<sup>3)</sup> 손해발생의 가능성은 객관적 확률로 평가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리스크와 주관적 확률로서만 평가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불확실성이 있다.<sup>4)</sup>

특정 국가의 영역을 넘어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무역은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수반하는 사업이자 투기적 성격을 지닌다. 아울러 무역은 언어와 상관습이 다른 외국 거래선과의 거래에서 오는 신용상의 위험, 선박 등을 이용한 장거리 운송 및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상의 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결제상의 위험 등과 같은 무역의 본질적인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진, 전쟁, 내란, 폭동 등과 같은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건에 의한 리스크, 자국 또는 상대국 정부에 의한 무역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상품도착 시점의 소비자 욕구와 유행의 변화 등과 같은 시장상의 리스크 등도 지니고 있다.

무역과 관련한 이러한 다양한 무역리스크는 확률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 리스크와 그렇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 대체로 발생빈도가 높은 리스크는 확률의 측정이 용이한 반면, 빈도가 낮은 리스크는 측정이 어렵다. 운송사고와 같은 리스크는 확률의 측정이 용이하지만, 전쟁이나 내란 및 폭동, 환율변동 등의 정치경제적 사건에 의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확률의 측정이 어렵다.<sup>5)</sup>

3) 박은희·정영동, 「리스크관리론」, 무역경영사, 1998, pp.3-21.

4) 정홍주·노희찬·최경진·김기혁, “무역위험의 위험관리론적 고찰”, 『해양비즈니스』, 제6호, 2005, pp.122-126.

## 2) 무역리스크의 유형

무역리스크는 무역거래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상품자체리스크, 거래처신용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화물운송리스크, 환율변동리스크, 실무절차리스크 등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의 방향, 리스크의 원천, 리스크의 발생 범위와 빈도, 리스크의 관리, 무역수단의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역거래의 방향에 따라 수출리스크와 수입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고, 리스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외부리스크와 내부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리스크 발생 범위와 빈도에 따라 비상리스크와 사업리스크로 나눌 수 있고, 무역리스크의 관리주체에 따라 기업차원 리스크와 국가차원 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무역수단의 변화, 즉 전자무역 리스크도 존재한다(<표 1> 참조).

〈표 1〉 무역리스크의 유형

구 분		내 용
무역의 본질적 리스크	상품자체 리스크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시간적, 공간적 차이로 인해 교역물품의 운송,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 자체의 리스크
	거래처 신용리스크	거래처 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 및 금융에 관한 지급불능이나 지급거절과 같은 신용리스크
	가격변동 리스크	무역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가격이 원자재 가격, 인건비, 세금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
	화물운송 리스크	항만 등에서의 파업, 폭동, 전쟁과 내란, 지진이나 폭풍우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운송 중단 또는 지연, 손실 발생 등의 리스크
	환율변동 리스크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외환시장에서의 환율변동과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 관련 리스크
	실무절차 리스크	국내거래보다 까다로운 국제거래 실무절차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를 처리할 때 존재하는 리스크
수출리스크		수출계약, 채산성, 품질, 운송, 납기, 선적서류 하자 등 수출상 자체 리스크, 환율변동, 통관, 정부정책변경 등 수출국 국내 리스크
수입리스크		대금결제, 클레임 등 수입상 자체 리스크, 통관, 정부정책변경, 시장위험 등 수입국 국내 리스크
비상리스크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파업 등을 비롯하여 지진, 폭풍, 폭우 등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사업 리스크	외부 리스크	정부의 무역 및 통상정책 변화, 경제활동 및 경쟁환경의 변화, 환율과 이자율 변동, 현지 여론과 노사관계 등의 변화 등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

5) 정재환, 『무역리스크 관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9, pp.55-56.

	내부 리스크	거래처 신용조사 미흡,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미숙, 분쟁해결 및 사후관리 미숙, 부적절한 수출관리 등 무역업체 내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전자무역리스크	전자무역 과정에서 전자무역을 이용한 해외마케팅 단계부터 전자무역 계약 단계 까지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
국가 차원 리스크	정부정책	무역정책 변화, 금융정책 변화, 외국인투자정책 변화, 노동정책 변화 등
	경제구조	경제구조 및 경제성장, 금융 및 외환사정, 무역자동화 시스템 등
	법제도	외국과의 통상 조약 및 협약,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인허가 및 통관절차 등

자료: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무역리스크 관리의 개요 및 기법

### 1) 무역리스크 관리의 개념 및 절차

바람직하지 않은 리스크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리스크 비용(risk costs)이라고 한다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리스크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라고 한다.

다시 말해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risks)나 위기(crisis)를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업무, 정책, 관리, 전략 등의 구체적 대비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리스크나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뜻이기도 하고, ‘리스크나 위기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그 피해와 손해를 최소화하여 개인이나 조직을 존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6)</sup>

리스크 관리의 절차는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한 리스크요소의 파악, 리스크의 측정, 최적의 리스크 관리 기법 선택, 선택한 리스크 관리 기법의 실행, 실행 결과 모니터링 등과 같이 5 가지 단계로 이뤄진다.

### 2) 무역리스크 관리 기법

일반적으로 무역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관리기법의 적용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만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에는 예측기법과 제어기법, 그리고 재무기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예측기법은 무역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무역리스크를 확인하여 분석하고 측정하는 것과 관련

6) 심상렬,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 연구,” 『경영경제연구』, 제33권 제2호, 2011, pp.240-244.

이 있다. 둘째, 제어기법은 손해가 발생하는 빈도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경제적 영향 또는 잠재적 손해의 연동을 감소시킴으로써 무역리스크 그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들 기법에는 위험제어(회피, 계약상 전가), 빈도제어(사고예방), 강도제어(손해경감, 분산, 결합) 등이 하위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다. 셋째, 재무기법은 발생하는 손해를 처리하기 위한 자금의 준비와 관련이 있으며, 대표적인 전가 수단의 하나인 보험을 비롯하여 계약상 전가, 그리고 보유 등이 해당된다.

### Ⅲ. 무역리스크 관리 선행연구 검토

#### 1. 선행연구 검토

##### 1) 무역리스크 관리 인식도

구중순(1990)<sup>7)</sup>은 수출위험의 인식도에 따라 수출위험관리방법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위험에 대한 관리적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고,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 비중과 수출거래단위금액이 신용위험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며, 신용위험과 보험 외 전가방법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류근옥(2002)<sup>8)</sup>은 위험관리의 인식도 및 필요성과 효율적 위험관리 수단의 활용과 관련하여 e-비즈니스 보험상품 사례연구를 통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할 때 위험관리방안으로서 철저한 방화벽을 구축하여 손실예방(loss prevention), 손실금융(loss financing)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명섭·한낙현(2006)<sup>9)</sup>은 무역거래에 따른 물품매매의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국제무역의 위험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위험, 결제위험, 운송위험 등에 대한 확인 및 측정이 미진함에 따라 통제 및 재무 측면의 위험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무역위험에 대해 특성별로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통합적 위험관리 노력이 필요함을

7) 구중순, “한국기업의 수출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8) 류근옥, “e-Business 리스크의 인식과 관리방안”, 『손해보험지』, 대한손해보험협회, 2002.7.

9) 박명섭·한낙현,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의 계약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4호, 2006.8.

강조하였다.

이경룡·김사영(2007)<sup>10)</sup>은 한국 제조기업의 리스크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이나 이론적, 실무적 지식과 경험은 부족하고,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기업에 잠재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성격 또는 특성을 상세히 분석·평가하지 못함으로써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제현·이홍로(2007)<sup>11)</sup>는 중소수출기업의 무역위험인식과 위험관리행동 그리고 수출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들은 먼저 무역위험을 무역거래에서의 무역계약의 이행불능, 수출입대금의 회수불능, 환차손실, 운송화물의 멸실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하는 비상위험, 신용위험, 환위험, 운송위험 등으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위험이라고 구분하였다.

## 2) 무역리스크 관리 기법

김용호·이경룡(1994)<sup>12)</sup>은 한국 수출기업에게 있어 신용리스크 관리기능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관리성과의 평가에 근거한 신용리스크 관리수단의 선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통제기법의 이용 비중이 높은 기업의 신용리스크 관리성과와 수출이익률이 리스크재무기법의 이용 비중이 높은 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식(2003)<sup>13)</sup>은 수입통관 및 관세징수와 관련하여 무역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오류수정 기회의 확대를 통해 우발적 비용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세관당국은 외국으로부터 무슨 물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고, 대신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이례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대하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석태(2006)<sup>14)</sup>는 기업의 e-비즈니스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e-비즈니스 리스크들을 규명하고, 리스크분석을 위한 툴로서 리스크 총비용 모델, 손실시나리오 모델 및 리스크 맵핑 모델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e-비즈니스 리스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부적 관리 방법과 보험을 이용한 외부적 관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Grath(2008)<sup>15)</sup>는 수출상은 신용조사를 통해 신규 고객과 거래관계를 맺거나 거래관계의 지

10) 이경룡·김사영,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리스크관리 현황과 발전과제”, 『리스크관리연구』, 제18권 제1호, 2007.

11) 이제현·이홍로, “한국 중소제조수출기업의 무역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3호, 2007.

12) 김용호·이경룡, “한국기업의 수출신용 리스크관리와 수출성과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1994.

13) 김재식, “기업입장에서 본 통관 관련 리스크의 완화방안”, 『한국관세학회지』, 제4권 제2호, 2003.8.

14) 김석태, “e-Business 리스크와 효과적인 관리 방안”,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1호, 2006.

15) Grath, Ander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Kogan Page Ltd, 2008.

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외 거래선의 신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독립적 기관(Atradius, Coface, D&B, Experian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희숙(2011)<sup>16)</sup>은 수출기업의 대금결제 리스크 관리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결제리스크 관리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출기업의 규모 및 수출대금 미회수 경험여부에 따라 수출대금결제 리스크 관리방법의 활용과 리스크 관리 성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김용일·박광서(2011)<sup>17)</sup>는 무역거래 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무역거래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 보증제도와 약정 손해배상금조항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 3) 무역절차 부문별 리스크 연구

#### (1) 계약리스크 일반

이동률·이기희(2005)<sup>18)</sup>는 무역계약측면의 무역위험이전 시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은 Incoterms 와 CISG를 준거법으로 채택할 경우,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를 구분하고 리스크관리 방안으로 계약당사자들은 이 두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한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명섭·한낙현(2006)<sup>19)</sup>은 국제물품 매매의 리스크와 구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물품매매계약시의 리스크, 리스크의 이전과 청구권자, 물품의 부적합과 매수인의 거절, 물품의 거절과 매수인의 청구, 물품의 부당거절과 매도인의 청구, 대금미지급과 운송중지 등에 대해 분류하고 대책을 제안하였다.

#### (2) 운송, 통관리스크

운송이행 리스크와 리스크 분담의 합리성과 관련하여 곽봉환(1995)<sup>20)</sup>은 해운위험에 대한 화주와 해상운송인의 적정책임 분담방안, 그리고 해상운송인과 해상보험업자간의 적정 위험 분담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라공우(2005)<sup>21)</sup>는 해상보험을 주제로 무역회사의 적하보험

16) 이희숙, “한국 수출기업의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17) 김용일·박광서, “무역거래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6권 제1호, 2011.

18) 이동률·이기희, “무역거래당사자간 계약물품의 위험이전 시기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5집 제2호, 2005.

19) 박명섭·한낙현,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의 계약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4호, 2006.

20) 곽봉환, “해운경영에 따른 기업위험과 리스크관리”, 『한국해운학회지』, 제21권, 1995.

21) 라공우, “한국무역기업의 적하보험조건 선택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30권 제1호, 2005.



조건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 (3) 결제리스크

김희국(1999)<sup>22)</sup>은 한국기업의 수출대금결제방법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수출대금 결제방식의 올바른 선택은 계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이용근·박종석(2003)<sup>23)</sup> 역시 수출대금 결제방식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한 바 있고, 홍길중·김구태(2012)<sup>24)</sup>는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신용위험 관리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 2. 선행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무역리스크에 관한 올바른 이해, 적절한 무역리스크 관리 절차 및 제도의 수립,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인 무역리스크 관리 및 운영은 무역업체의 무역거래 활동 및 경영성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살펴본 무역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무역리스크의 인식도가 어떠한지, 무역리스크 관리 절차와 기법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각 단계 및 절차별로 잠재된 무역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기업차원 및 국가차원으로 구분하여 다루어야 할 무역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국과 교역이 많은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이 중국과의 무역거래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따른 무역리스크를 어떻게 인식 및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태분석과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첫째, 무역리스크와 관련하여 정립된 이론이나 연구모형이 미흡한 상황에서는 무역리스크를 해외마케팅, 무역계약, 물류조달 및 운송, 대금결제, 무역클레임 등 무역거래의 각 단계 내지 절차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천지역 한국 무역업체가 중국 거래선과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 무역리스크를 무역실무 차원 및 정부정책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역실무 차원의 경우 신뢰리스크, 결제리스크, 환율리스크, 운송리스크, 서류리스크, 물품조달/유통리스크 등

22) 김희국, “한국기업의 수출대금결제방법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23) 이용근·박종석, “수출대금결제방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2003.

24) 홍길중·김구태,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신용위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2.

이 해당된다. 정부정책 차원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리스크 중 정책리스크가 해당된다.

## IV.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무역리스크 관리

### 1. 중국과의 무역리스크 관리 실태분석

#### 1) 설문조사 개요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무역리스크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역리스크 관련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항목 및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기업 일반 현황 5개 문항을 포함하여 무역업무처리 현황, 중국과의 무역클레임 및 무역리스크 현황 등 크게 3개 범주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인천지역 소재 한국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10월 24일부터 2011년 11월 11일까지 직접방문, 팩스, 전화 및 e-Mail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활발한 인천지역 소재 제조업 겸업 무역업체 또는 순수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400개 설문지 발송업체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총 85개사로서, 회수율은 21.3%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개 설문을 제외한 84개 설문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응답업체의 일반 현황

<표 2>는 실제 통계 분석에 활용된 표본기업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업형태를 살펴보면, 제조업 겸업 무역업체가 76개사(90.5%), 순수 무역업체가 8개사(9.5%)였으며, 중국에 현지법인을 보유하지 않은 무역업체가 57개사(67.9%)로 가장 많았다. 응답업체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년도를 살펴보면, 현지사무소는 대개 200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중국 현지공장은 대개 1994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각각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급품목을 살펴보면, 전기전자제품류, 금속 및 철강류 및 일반기계 및 장비류가 각각 16개사(19.0%)로 가장 많았다. 전체 종업원수를 살펴보면, 10명-49명이 39개사(46.4%)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과의 무역경력은 2년-4년이 25개사(29.8%)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거래 빈도는 상해, 산둥성(청도 등), 광둥성(심천 등), 천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업체의 일반 현황

구 분		업체 수(개)	구성비(%)
기업 형태	제조업 겸업 무역업체	76	90.5
	순수 무역업체	8	9.5
	합 계	84	100.0
현지법인 보유 현황	없음	57	67.9
	현지 공장	16	19.0
	현지 사무소	9	10.7
	기 타	2	2.4
	합 계	84	100.0
취급품목	전기전자제품류	16	19.0
	금속 및 철강류	16	19.0
	일반기계 및 장비류	16	19.0
	석유 및 화학제품류	7	8.4
	목재 및 가구류	4	4.8
	섬유제품 및 의류	3	3.6
	농·수산물	2	2.4
	공예품 및 장신구류	2	2.4
	음·식료품류	1	1.2
	의약 및 건강식품	1	1.2
	피혁 및 신발류	0	0.0
	기 타	16	19.0
	합 계	84	100.0
중국과의 무역 경력	2년-4년	25	29.8
	5년-7년	24	28.6
	8년-10년	16	19.0
	11년 이상	15	17.9
	1년 미만	4	4.8
	합 계	84	100.0
중국과의 무역 지역 (복수응답)	상해	33	-
	산둥성(청도 등)	30	-
	광둥성(심천 등)	24	-
	천진	15	-
	북경	14	-
	요녕성(대련, 심양 등)	9	-
	길림성(장춘, 연변 등)	5	-
	흑룡강성(하얼빈 등)	2	-
	기 타	11	-
합 계	143	-	

### 3) 중국과의 무역업무처리 현황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이 중국과 수출마케팅, 무역계약, 물품조달 및 운송, 대금결제 등 무역 절차상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무역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11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중국시장정보 획득 및 시장조사는 직접 현지출장방문이 38개사(45.2%)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거래선 발굴 방법은 해외 전시회 참가가 28개사(3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주, 유럽 등지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전통적인 거래알선 서비스 이용은 극히 저조한 것(1개사, 1.2%)으로 나타났는데, 중국과의 오랜 무역경험 및 접근용이성 등에 따라 온라인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의 활용이나 무역지원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중문 또는 영문)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홈페이지가 있지만 잘 관리하지 않은 경우가 34개사(40.5%)로 가장 많았으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20%에 이르고 있어 해외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홈페이지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표 3>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방법, 홈페이지 보유 현황

구 분	최고 응답항목	업체수	구성비(%)
시장조사 방법	직접 현지 출장 방문	38	45.2
거래선 발굴방법	해외전시회 참가	28	34.1
홈페이지 보유현황	있지만, 잘 관리안함	34	40.5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중국 거래선과의 계약서 작성은 Invoice, Offer Sheet로 대신하는 경우가 54개사(64.3%)로 가장 많았고, 법률자문에 의거한 계약서 작성이 4개사(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반수의 무역업체들이 중국 거래선과의 계약서 작성에 있어 Invoice, Offer Sheet 등 약식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자문 없이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수출입 화물운송 방법을 살펴보면, 제3자 전문물류업체 활용이 55개사(6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중소복합물류업체를 활용이 24개사(28.9%)로 화물운송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거래선과의 수출거래에서 활용하는 Incoterms 거래조건을 살펴보면, 수출에는 본선인

도조건(FOB)이 41개사(57.8%)로 가장 많아 운송 과정상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거래선과의 수입거래에서 활용하는 Incoterms 거래조건을 살펴보면,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이 24개사(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본선인도조건(FOB)이 19개사(39.6%)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단거리 운송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거래선과의 대금결제방식을 살펴보면, 송금방식(T/T)이 72개사(8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신용장 방식(L/C)이 10개사(12.1%), 추심결제방식(D/A, D/P)이 1개사(1.2%)로 각각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추세와 동일한 현상이다.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통상적인 대금결제기간을 살펴보면, 일람지급 방식(At sight)이 44개사(5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일후 지급이 24개사(29.3%)로 각각 나타나 대부분의 무역업체가 선적서류와 교환으로 즉시 대금결제하거나 1개월 이내에 결제하여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4> 참조).

<표 4> 계약서작성, 수출입화물운송, 인코텀즈 조건, 대금결제방법

구 분	최고 응답항목	업체수	구성비(%)
계약서 작성	Invoice, Offer Sheet로 대신	54	64.3
수출입화물 운송	제3자 물류 활용	55	66.3
Incoterms 거래조건(수출)	FOB	41	57.8
Incoterms 거래조건(수입)	CIF	24	50.0
대금결제방법	송금방식	72	86.7

#### 4) 중국과의 무역클레임 및 무역리스크 현황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이 중국과 무역거래에서 어떻게 무역클레임을 예방 및 해결하고 있는지, 무역리스크에 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을 느끼는지를 파악하고자 9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2010년도 기준 연간 대중국 무역클레임 수출입 건수를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20건, 수입의 경우 15건으로 나타났다. 중국 거래선과의 무역클레임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클레임의 경우 물품대체 청구가 23개사(6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손해배상금 청구가 4개사(11.8%), 매매계약 취소/해약이 1개사(2.9%)로 각각 나타났다. 수입클레임의 경우에도 물품대체 청구가 33개사(7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대금지급 거절이 3개사(7.0%), 손해배상금 청구가 2개사(4.7%)로 각각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응답업체의 중국 거래선과의 무역클레임 청구 내용

구 분	수출클레임				수입클레임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물품대체 청구	23	67.6	3	23.0	33	76.7	0	0.0
손해배상금 청구	4	11.8	5	38.5	2	4.7	4	23.5
매매계약 취소/해약	1	2.9	2	15.4	0	0.0	3	17.6
대금지급 거절	0	0.0	2	15.4	3	7.0	7	41.3
기타	6	17.7	1	7.7	5	11.6	3	17.6
합계	34	100.0	13	100.0	43	100.0	17	100.0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중국 무역클레임 발생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수출클레임 발생의 주요 원인에는 품질이 24개사(6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선적(납기), 대금결제 각각 4개사(10.3%), 포장 2개사(5.1%), 그리고 규격 및 수량이 각각 1개사(2.6%)로 나타났다. 수입클레임 발생의 주요 원인에는 품질이 36개사(8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선적(납기)이 3개사(6.7%), 그리고 포장, 규격 및 수량이 각각 1개사(2.2%)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응답업체의 중국 무역클레임 발생의 주요 원인

구 분	수출클레임				수입클레임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품질	24	61.5	2	9.5	36	80.0	1	3.3
선적(납기)	4	10.3	6	28.6	3	6.7	5	16.7
대금결제	4	10.3	2	9.5	0	0.0	2	6.7
포장	2	5.1	3	14.3	1	2.2	6	20.0
규격	1	2.6	6	28.6	1	2.2	8	26.7
수량	1	2.6	2	9.5	1	2.2	7	23.3
법규위반	0	0.0	0	0.0	0	0.0	1	3.3
서류상 하자	0	0.0	0	0.0	0	0.0	0	0.0
기타	3	7.6	0	0.0	3	6.7	0	0.0
합계	39	100.0	21	100.0	45	100.0	30	100.0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수출클레임의 경우 거의 대부분 청구권 포기, 합의 등과 같이 당사자 간 해결(90.7%)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클레임의 경우 당사자 간 해결(청구권 포기, 합의)이 42개사(89.4%)로 가장 많았고, 제3자에 의한 해결(알선, 조정, 중재)이 1개사(2.1%)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응답업체의 중국 수출입 거래선과의 무역클레임 해결 방법

구 분	수출클레임				수입클레임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업체수	구성비 (%)	업체수	구성비 (%)	업체수	구성비 (%)	업체수	구성비 (%)
당사자간 해결(청구권 포기, 합의)	39	90.7	0	0.0	42	89.4	0	0.0
법적 해결(소송)	0	0.0	1	9.1	1	2.1	10	83.4
제3자에 의한 해결(알선, 조정, 중재)	0	0.0	9	81.8	0	0.0	1	8.3
기타	4	9.3	1	9.1	4	8.5	1	8.3
합계	43	100.0	11	100.0	47	100.0	12	100.0

중국 거래선과의 분쟁예방 방법을 살펴보면, 별도의 예방 조치 없음이 49개사(61.3%)로 가장 많았고, 계약서에 중재조항 명기(대한상사중재원)가 21개사(26.2%), 계약서에 중재조항 명기(중국중재위원회)가 4개사(5.0%)로 각각 나타났다(<표 8> 참조). 기타 분쟁예방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 사전조율 및 사후처리, 증인을 활용, 신용관계유지, 계약서에 책임한도 명기 등이 열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무역업체들이 중국 거래선과의 분쟁에 대한 별도의 예방 조치가 없으며, 무역리스크 예방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표 8> 응답업체의 중국 거래선과의 분쟁예방 방법

구 분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별도의 예방 조치 없음	49	61.3	4	19.0
계약서에 중재조항 명기(대한상사중재원)	21	26.2	4	19.0
계약서에 중재조항 명기(중국중재위원회)	4	5.0	10	47.6
기타	6	7.5	3	14.4
합 계	80	100.0	21	100.0

인천지역 무역업체가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주로 경험하는 무역리스크를 살펴보면, 환율리스크가 35개사(4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결제리스크가 22개사(27.2%), 신뢰리스크가 19개사(23.4%), 운송리스크가 2개사(2.5%), 물품조달/유통리스크가 1개사(1.2%)로 각각 나타났다(<표 9> 참조). 즉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가장 크고, 불확실하거나 지연되는 대금결제, 상대방에 대한 신뢰 미흡 등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중국 무역거래에서 경험하는 무역리스크

구 분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환율리스크	35	43.2	11	19.0
결제리스크	22	27.2	12	20.7
신뢰리스크	19	23.4	11	19.0
운송리스크	2	2.5	10	17.2
물품조달/유통리스크	1	1.2	9	15.5
서류리스크	0	0.0	0	0.0
정책리스크	0	0.0	5	8.6
기타	2	2.5	0	0.0
합 계	81	100.0	58	100.0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특별히 관리 안함이 69개사(8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환변동보험 가입이 6개사(7.2%)로 나타났다 (<표 10> 참조). 기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법으로는 환율변동추이관리, 결제유보, 납품 단가 조정, 내부 매뉴얼에 의한 관리, 매매계약시 변동환율에 따라 적용, 보류가격 실행 및 기준 환율을 낮게 책정 등이 열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80%가 넘는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이 환율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율리스크 관리 관련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한 내부 전문인력의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응답업체의 환율리스크 관리방법

구 분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특별히 관리 안함	69	83.1	5	31.2
환변동보험 가입	6	7.2	6	37.6
기타	8	9.7	5	31.2
합 계	83	100.0	16	100.0



중국 거래선과의 대금결제 리스크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특별히 관리 안함(7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무역보험 가입이 12개사(15.0%)로 나타났다 (<표 11> 참조). 이러한 결과는 환율리스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금결제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내부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응답업체의 중국 거래선과의 대금결제 리스크 관리방법

구 분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특별히 관리 안함	63	78.7	5	31.2
무역보험 가입	12	15.0	6	37.6
기타	5	6.3	5	31.2
합 계	80	100.0	16	100.0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중국의 무역정책(관세, 비관세 등) 변화가 25개사(3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중국의 금융정책(환율, 이자율 등) 변화가 18개사(22.2%)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의 물류시스템(보관, 내륙운송 등) 및 중국 거래선의 (일방적) 계약 위반/해지가 각각 9개사(11.1%), 중국의 노동정책(임금, 고용 등) 변화와 중국 행정기관(세관 등)의 관료적 업무처리가 각각 6개사(7.4%), 중국 관련 인력관리(내부, 현지의 어려움)가 4개사(4.9%),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세금, 규제 등) 변화가 2개사(2.5%)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중국의 물류인프라나 거래선의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보다 무역, 금융, 노동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 관련 리스크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협상이나 실무협의 등 적절한 공동대응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응답업체의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국가차원 리스크

구분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3순위 업체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중국의 무역정책(관세, 비관세 등) 변화	25	30.9	12	17.6	8	15.4
중국의 금융정책(환율, 이자율 등) 변화	18	22.2	11	16.2	8	15.4
중국의 물류시스템(보관, 내륙운송 등)	9	11.1	11	16.2	7	13.5
중국 거래선의 (일방적) 계약 위반/해지	9	11.1	10	14.7	6	11.5
중국의 노동정책(임금, 고용 등) 변화	6	7.4	8	11.8	6	11.5
중국 행정기관(세관 등)의 관료적 업무처리	6	7.4	7	10.3	6	11.5
중국 관련 인력관리(내부, 현지의 어려움)	4	4.9	5	7.3	5	9.6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세금, 규제 등) 변화	2	2.5	4	5.9	5	9.6
기타	2	2.5	0	0.0	1	2.0
합 계	81	100.0	68	100.0	52	100.0

## 2. 중국과의 무역리스크 관리 실태분석 종합 및 개선방안

### 1) 중국과의 무역리스크 관리 실태분석 종합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은 개별 무역업체 차원에서 대처가 어려운 국가차원의 무역리스크, 즉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 중국의 낙후된 물류시스템 등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기업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무역단계별로 리스크관리 인식도가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리스크관리가 매우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수출 마케팅 단계에서 해외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홈페이지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하며, 홈페이지의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품 및 기업 정보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높다.

둘째, 무역계약 단계에서 대부분 중국 거래선과 Invoice, Offer Sheet 등 약식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문적인 법률자문 없이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무역분쟁이 발생할 때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무역분쟁 시 청구권 포기, 당사자 간 합의 등 소극적 대응 및 원시적 방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품조달 및 운송 단계에서 수출의 경우 Incoterms 거래조건 중 FOB 조건을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을 부담될 수 있는 CIF 조건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수출에 있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입의 경우 Incoterms

거래조건 중 CIF 조건을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FOB 조건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수입에 있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대금결제 단계에서도 환율리스크, 결제리스크 등에 대해 대부분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발생시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

## 2) 중국과의 무역리스크 관리 개선방안

이상과 같은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중국 무역리스크 관리 현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 및 무역업체 간 질적 격차를 좁히는 것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무역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무역업체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무역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종합적 연구와 자료수집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한 전문기구를 만들거나 외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며, 주기적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무역리스크 관리 세미나, 발표회 등을 통해 서로 학습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역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최고경영자의 인식 제고 및 실천의지를 북돋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모임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무역리스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역리스크 관리 관련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무역업체 자체적으로 내부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효율적인 무역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무역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중요하다. 무역거래 각 절차별로 잠재적인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의 크기 및 영향 평가하며, 적절한 무역리스크 관리 방법을 선택 및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사후 평가 및 피드백하는 무역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 V. 결 론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의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아지

면서 한·중 간 무역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그로 인해 손실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4.2%로 중국과 같은 화교권인 대만(27.2%)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및 그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리스크 관리 저하 등은 상존하는 중국과의 무역리스크를 가일층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로 리스크 경감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더 요구된다.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무역, 금융, 노동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발효된 중국의 신노동법, 중국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인위적인 환율개입 등이 대표적 정책변화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 및 중국의 경제구조와 관련한 리스크는 개별 무역업체 차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무역마케팅, 무역계약, 운송 및 조달, 무역대금결제 단계별로 적절한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클레임의 경우에도 별도의 예방 조치가 없으며, 인식 자체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절차별 리스크는 여타 국가와의 거래 시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대중국 무역 편중도, 무역, 노동 및 환율정책 등 중국 내부 정책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각별한 리스크 관리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무역리스크 전반에 관한 별도의 교육은 거의 전무하며, 무역실무 교육 차원에서 가볍게 다루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과의 이러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의 무역리스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지역 무역업체 최고경영자들의 무역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국 무역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에 대한 전문적 교육 기회의 제공 및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의 무역리스크로 인한 무역업체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의 수집 및 전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역리스크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학문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무역유관기관의 역할 증대와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본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가 운송 및 보험, 대금결제 등 일부 무역단계에 머물고 상대적으로 실증 연구가 미흡했던 무역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역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무역거래 현황을 중심으로 빈도분석에 의해 간접적으로 무역리스크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설문조사 범위가 인천지역 무역업체에 한정되고, 표본 무역업체 수도 84개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리커트 5점 척도 등에 의한 설문지 구성, 설문조사 대상 지역 및 무역업체의 확대, 현장 방문과 인터뷰 등을 통한 심층조사 및 사례분석, 빈도분석 외의 다양한 분석기법 활용 등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곽봉환, “해운경영에 따른 기업위험과 리스크관리”, 「한국해운학회지」, 제21권, 1995.
- 구종순, “한국기업의 수출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 김용일·박광서, “무역거래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6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1.2.
- 김재식, “기업입장에서 본 통관 관련 리스크의 완화방안”, 「한국관세학회지」, 제4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3.8.
- 김태인·김석태, “수출입기업의 관세업무 리스크관리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6.12.
- 김희국, “한국기업의 수출대금결제방법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 라공우, “한국무역기업의 적하보험조건 선택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5.
- 류근옥, “e-Business 리스크의 인식과 관리방안”, 「손해보험지」, 대한손해보험협회, 2002.7.
- 민승규, “위기관리의 중요성과 기업의 대응전략”, 「불확실한 경영환경하의 기업의 위기관리」, 대한상공회의소, 2003.
- 박명섭·박낙현,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의 계약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6.8.

- 박은희·정영동, 「리스크관리론」, 무역경영사, 1998.1.
- 심상렬, “디지털상품 및 기술의 국제간 거래와 위험관리 연구”, 「수출보험학회지」, 제5권 제1호, 수출보험학회, 2004.
- \_\_\_\_\_. “디지털상품의 국제거래 유형과 분쟁 해결방안”, 「중재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7.
- \_\_\_\_\_,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 연구”, 「경영경제연구」, 제33권 제2호, 충남대 경제경영연구소, 2011.
- 이경룡·김사영,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리스크관리 현황과 발전과제”, 「리스크관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7.
- 이동윤·이기희, “무역거래당사자간 계약물품의 위험이전 시기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5집 제2호, 2005.
- 이봉걸, “한·중 수교 20주년 대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2.5.
- 이승관, “글로벌 전자무역산업(e-Trade)선점 추진 방안”, 성남산업진흥재단 정책연구, 2010.
- 이용근·박종석, “수출대금결제방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3.
- 이제현·이홍로, “한국 중소제조수출기업의 무역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7.
- 이희숙, “한국 수출기업의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정재환, 「무역리스크 관리」, 성균관대학교 출판사, 2009.9.
- 정홍주·노희찬·최경진·김기혁, “무역위험의 위험관리론적 고찰”, 「해양비즈니스」, 제6호,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005.
- 정홍주·성수남·최유미, “무역리스크관리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무역학회지」, 제37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2.6.
- 최진혁, “기업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전략에 관한 연구 : 해외 Pandemic Planning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기업경영학회, 2010.12.
- 홍길중·김구태,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신용위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2.
- Grath, Ander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Kogan page Ltd, London and

Philadelphia, 2008.

Lorelie S. Masters, “Covering Cyberspace and Computer Liability, Risk & Management”, Society Conference & Exhibition, Sanfrancisco, CA, 2000.5.

MacCrimmon, K. and Wehrung, D., Taking Risks: The Management of Uncertainty, Macmillan USA, 1986.

Martin Gorrod, “Risk Management Systems”, Palgrave Macmillan, 2001.

Moore. G. G., The Business of Ris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Nelson, A, Import/Export: How to Take Your Business Across Borders, McGraw-Hill, 2008.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http://www.customs.go.kr/>)

관세청(<http://www.customs.go.kr/>)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http://www.customs.gov.cn/>)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http://www.mofcom.gov.cn/>)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de Risk Management of Korean Companies in Incheon Area Trading with China

Sang-Ryul Shim\* · Sang-Pil Bae\*\* · Tian-Jiao Wa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and problems of trade risk management of Korean companies in Incheon area trading with China and to suggest some improvement measures.

On the survey with twenty five questions on company profiles, business process and transactions, claims and trade risks, etc. with Chinese trading partners, the following facts are found.

In general, Chinese policies on foreign trade, finance, labour, investment, etc. and China's logistics system have caused great worries to Korean companies in Incheon area. This kind of risks from Chinese government policies and China's economic structure are beyond control of each company.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ore effective measures to negotiate with Chinese government.

In the stage of contract, procurement and transportation, settlement, disputes resolution and etc. Korean companies in Incheon area also have many problems with relatively high risks with Chinese trading partners. Based on these survey results, some suggestions for better trade risk management are given.

**Key Words** : Trade Risk, Risk Management, Incheon Area, Korea-China Trade

---

\* Professor, Dept. of Northeast Asian Trade, Kwangwoon University

\*\* Ph.D. Candidate, Dep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ersity

\*\*\* Master's degree, Dep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ersity